

계시록 8-9장은 어느 시대인가?(1)

- 읽을 말씀 계 8:1-6
- 주요 내용

지난 시간에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휴거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8-9장이 어느 시기에 대한 예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7년대환난이라는 용어가 성경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에 해당하는 한 이레가 나옵니다(단 9:27). 적그리스도가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 한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자기 우상을 성전에 세우고 거절하는 자를 죽이고 박해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환난(후 삼년 반)입니다. 그런데 대환난 전에도 끔찍한 재앙과 전쟁은 일어납니다. 그 증거로, 계시록 8장 13절의 첫째와 둘째 화는 전 삼년 반에 일어나고, 셋째 화는 대환난 때 일어납니다. 두 화 전에 일어나는 1-4째 나팔 재앙도 전 삼년 반에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한 이레를 7년대환난이라고 불러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7년대환난이라는 고전적인 용어를 고수할 것입니다.

한편, 많은 이들은 계시록 8-9장을 대환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8-9장은 대환난이 아니라 7년대환난의 전 삼년 반에 대한 예언이며, 그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1) 인 맞은 십사만 사천과 8-9장의 관계가 그 증거다!

계시록 7장에서는 인 맞은 십사만 사천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이는 유대인과 관계있는 다니엘 70이레의 마지막 이레(7년대환난)가 임박했고 곧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기록한 것이 8-9장입니다. 따라서 두 장을 전 삼년 반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2) 8장에서 드디어 일곱 인봉한 두루마리가 열린다.

일곱 인봉한 두루마리는 일곱 인을 다 떼야 내용을 볼 수 있는데, 8장에서

일곱째 인을 뺏습니다. 그 내용은 적그리스도가 일으키는 대환난과 예수님의 재림 전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8-9장은 전 삼년 반에 대한 기록입니다. 또, 다니엘 9장 27절의 예언에서 “한 이레” 는 7년대환난을 뜻하고 “그 이레의 절반” 은 대환난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대환난을 계시록 11장 15절부터 다루기 때문에 그 전까지의 내용은 전 삼년 반에 일어난다고 보아야 합니다.

(3) 8-9장의 위치 자체가 전 삼년 반 시대라는 증거이다.

8-9장은 인 맞은 십사만 사천 뒤에 위치합니다. 인 맞은 그들은 대환난 초기에 적그리스도에 의해 순교합니다. 천사가 이들에게 인을 친 이유는 전 삼년 반 때 일어날 재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 8장이 나오고 특히 그들이 재앙으로부터 보호받는 9장 4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8-9장이 전 삼년 반에 대한 예언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4) 계시록 7장과 8장의 범상치 않은 시작이 그 증거다.

7장과 8장의 서두를 보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등 표현들이 구구절절 불길합니다(7:1-3, 8:1-5). 과연 어떤 일이 시작되기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7년대환난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기록한 것이 8-9장입니다. 그러니 이 시기는 당연히 7년대환난의 전 삼년 반입니다.

놀랍게도, 7년대환난 때 일어날 재앙들은 성도들의 기도응답으로 일어납니다(8:3-5). 천사가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제단의 불과 함께 땅에 쏟음으로 7년대환난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일까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이 그것을 보여주는데,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 지금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모욕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대환난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극에 달합니다. 누구보다 적그리스도와 7년대환난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 완악한 악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13:5-6, 16:9 등). 그러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는 적그리스도와 그 추종자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이 악을 완전히 끊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영원히 예배와 찬양과 경배와 감사만 받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 우리가 영원히 살 궁극적인 천국은 하늘이 아니라 땅에 임합니다. 천년왕국뿐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도 땅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는 다니엘이 예언한 네 짐승이 차례로 나라를 차지하고 그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는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년왕국과 나아가서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위한 기도이며, 실제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 하나님은 천국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마귀나 악인들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얼마나 오래도록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마귀와 악인들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그 결과 얼마나 큰 눈물과 고통과 불행이 있어왔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끝이 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나라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히 그런 나라가 오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 땅에는 항상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하셔서 영원히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계 7:15-16).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 인간은 죄인이고 용서가 필요합니다. 마귀도 이것을 알아서 참소를 주무기로 삼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다니엘이 예언한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그때가 옵니다(단 9:24). 이것은 재림 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일이고, 우리는 완전히 용서받고 의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 이 땅에는 시험과 유혹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서 늘 근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으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될 날이 올 것입니다(롬 8:19-23, 빌 3:18-21 등). 그 날 우리는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자유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 여기에 나오는 “악” 은 ‘악한 자’ 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공격에서 보호하고 지켜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런데 천년왕국 후 하나님은 마귀를 불못에 던져버리심으로 완전히 끝내버리

십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귀신들은 우리와 영원히 격리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천사들은 영원히 우리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 이것이 주기도문의 목적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회복된 영원한 천국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계시록에 예언된 과정들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주님은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보여주며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며 이것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고 높여주시며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뿐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5) 계시록 6장 뒤처럼 9장 뒤에도 삽입이 나온다!

계시록 7장처럼 10장 1절-11장 13절도 삽입입니다. 7장의 삽입은 6장에서 말세의 징조를 전체적으로 보여준 것을 종결하고, 7년대환난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기 직전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10장 1절-11장 13절의 삽입도 마찬가지로 전과 다른 주제가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후 삼년 반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 전의 8-9장은 전 삼년 반에 대한 예언입니다.

● 나눔과 적용

나라도 아버지께, 권세도 아버지께, 영광도 아버지께! 이것이 주기도문의 목적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인지 돌아보고,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경험하게 된 변화들과 복을 나누어 봅시다.